

특특뉴스

챗GPT 영향 직업 회계사·작가 등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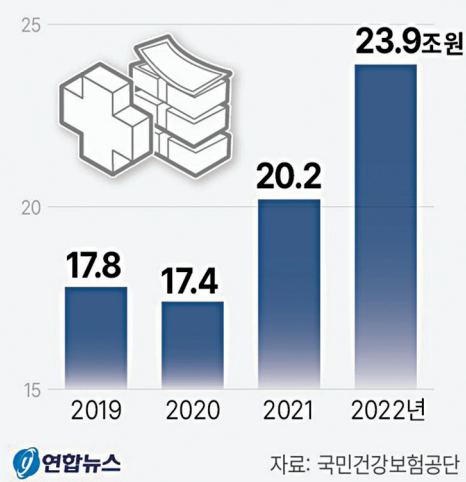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이들 직업의 업무가 생성형 AI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회계사를 비롯해 미국 전체 노동자의 19%는 AI 기술의 도움으로 업무의 최소 절반 이상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신 GPT 기술은 통역은 물론 분류,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등의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그래픽 경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현황



작년 건보 흑자...누적 적립금 24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의료 이용이 늘었지만 보험료 등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 폭보다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늘어났다.

강소기업을 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 강소기업 PR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업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홍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산단공이 소개하는 강소기업을 찾아가 본다.

광주 북구 첨단산단에 소재한 ㈜비온사이노베이터(대표이사 김용수)는 지난 2006년 설립됐으며, SI·AI를 기반으로 정보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는 고객사의 경영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분석·설계 및 개발·컨설팅과 설계·구축에 필요한 H/W·S/W, 솔루션을 포함 통합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주로 건강 도모를 위한 플랫폼이 주를 이룬다. '한국인 지방 및 근육량 데이터 구축과 AI 분석 서비스'와 치매 예측 모델 플랫폼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반 고위험군 라이프 로그 통합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방 시설 및 장비 3D 객체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은 비온사가 가장 주력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① ㈜비온사이노베이터

AI 기반 ICT 서비스 제공 기업
건강·공공 활용 목적 플랫폼 개발

미래 세대 위한 EMS도 선보여
기술 공유 플랫폼 '협공' 주목

매년 이익 30% 연구·개발 투자

공공 활용 목적으로 소방 시설 및 장비 관련 3D 객체 데이터를 구축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했다.

실제 VR 훈련을 할 수 있는 6가지 카테고리, 480종 30만 건의 3D 객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재진화·구조·대피 훈련으로 구성돼 훈련 결과 분석과 피드백까지 제공한다.

현재 광주시, 전남도, 교육청, 대학 등과 나주·전주혁신도시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탁·운영중이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는 비온사이노베이터가



㈜비온사이노베이터 김용수 대표가 광주 북구 대촌동 자사에서 '소방 시설·장비 3D 객체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다.

가진 경쟁력이다.

비온사이노베이터는 또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미래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On-system'과 'B-EMS', 'ACEMS' 등 EMS(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선보여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리 환경을 도모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적은 최근 3년간 롯데마트 12건, 홈플러스 5건이다.

아울러, 제조기술 공유 및 기업 간 협력을 위

한 플랫폼 '협공'도 기대를 안고 있다. 기업들에게 지역의 숙련된 명·장인 등 전문가와 상급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장 정보 제공,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광주명장협회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중이다.

김용수 대표는 "비온사이노베이터는 우리 지역의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경영목표인 '이노베이션(Innovation) 2030'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매출을 20% 향상시키고, 이익의 30%는 인력양성을 포함한 신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등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홍승현 기자

광은, 고향기부제 답례품 복지시설에 재기부

광주은행은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또다시 기부하는 행사를 펼쳤다. 임직원들은 쌀·잡곡·김 등 1,000만원 상당의 다양한 품목의 답례품을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답례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사랑에 대한 임직

원들의 마음을 더 많은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재기부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지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동시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오지현 기자



광주은행은 29일 본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펼쳤다. 왼쪽부터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우경 부행장. /광주은행 제공

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한마당대축제

4.28 금 - 30 일

수원메세 수원역



- 주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Newspapers
- 주관: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국제신문,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영남일보, 인천일보, 울산매일, 전남매일, 서울매일,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주관: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 조직위원회
후원: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 02-6121-6388